

News Focus

Can online courses replace on-campus education?

Massive open online courses (MOOCs) appear to be cheap shortcuts to distribute knowledge and build university brands, but are MOOCs real education? Elite institutions such as Harvard, Stanford and MIT offer MOOCs, and less famous providers have jumped onto the bandwagon too. MOOCs can also be consumed on iTunes, YouTube and TED.

While the dissemination of free knowledge is applaudable, the pedagogical merit of MOOCs has been questioned. MOOCs offered by universities often have a longer timeframe and participants will only be successful if they are self-disciplined; many quit without completing. This in turn means that on-campus formal university education is not easily replaceable.

MOOCs and online teaching have a place in the future of education for part-time study at the tertiary level, and of course for topical training outside of formal university education.

Scholarly guidance and rigorous testing are an integral part of university education, and such integrity is most credible when tested in person with proper invigilation. For MOOCs, the true person taking the test online cannot be verified, which can negatively impact brands offering such programs.

While elite institutions have introduced some MOOCs, they have also returned to more traditional formats of on-campus instructions.

For universities, going back to the future with online/MOOCs adding to on-campus courses is a formidable approach. But replacing on-campus learning experiences with MOOCs is impossible, economically not feasible and ultimately not in the students' learning, economic and career interests.

Cheap 저렴한 / distribute 배포하다 / applaudable 칭찬받을 만한 / pedagogical 교육적인 / disciplined 훈련이 된 / replaceable 대체가능한 / topical 시사 / rigorous 엄격한 / integral 필수불가결한 / integrity 진실성 / invigilation 감독 / formidable 엄청난 / feasible 실현가능한

온라인 강의들이 실제 교육을 대체할 수 있을까?

개방형온라인강좌(MOOCs)는 지식을 퍼뜨리고 대학 브랜드를 만드는 저렴한 지름길처럼 보이지만 MOOCs가 진정한 교육일까? 하버드, 스탠포드 그리고 MIT 등의 엘리트 기관들은 MOOCs를 제공하며 덜 유명한 제공자들 또한 시류에 편승해왔다. MOOCs는 아이튠, 유튜브 그리고 TED에서도 소비될 수 있다.

무료 교육을 보급하는 것은 갈채를 받을 만 하지만 MOOCs의 교육적인 장점은 의문시되어왔다.

대학에서 보급하는 MOOCs는 더 긴 기간을 가지고 있으며 참가자들은 대부분이 마무리 하지 못하고 포기하기 때문에 자기훈련이 되어있어야만 성공적일 수 있다. 이는 직접 받는 정식 대학교육이 쉽게 대체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MOOCs와 온라인 교육은 고등교육의 파트타임 공부는 물론 정식 대학 교육 외의 시사 훈련을 위한 미래 교육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학구적인 지도와 엄격한 시험은 대학 교육에서 필수불가결한 부분이며 이러한 진실성은 올바른 시험감독과 함께 직접 사람이 보는 것이 가장 믿을 만 하다. MOOCs는 본인이 온라인에서 그 시험을 치르고 있는지는 확인될 수 없으며 이는 이러한 프로그램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엘리트 기관들이 몇몇MOOCs를 소개해왔지만 그들 또한 실제 강의를 위한 더 전통적인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다. 대학들에게 실제 수업에 덧붙여 온라인/MOOCs와 함께 미래로 돌아가는 것은 엄청난 방법이다. 하지만 실제 교육경험을 MOOCs로 대체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없으며 결정적으로 학생들의 배움과 경제적 그리고 경력에 대한 흥미를 위한다면 불가능하다.

Denmark eyes organic consumers

Middle- and upper-income Korean consumers put quality ahead of price when buying food and their preference for safe food has led to the growth in organic products.

Denmark, one of the world's leading organic goods producers, sees the rise of organic consumption in Korea as a window of opportunity.

"Korea is a very interesting market," Danish Ambassador Thomas Lehmann said. "The country is a growing market, one of the richest countries in the world and has a fast-growing middle class. The Korean market is very important to us."

The Danish envoy pinpointed organic products as an area with great potential for growth in bilateral trade in the near future.

"Korean consumers are increasingly seeking healthy lifestyles, and organic food is an important part of that," he said. "Denmark is one of the largest organic food producers in the world. Thus, this is an area we can work closely together."

Korea imports a variety of Danish products, with pork and poultry two items commonly seen in retail stores.

"We have a very good position in the Korean market. But I think we can do better," said Lehmann.

Certified Danish organic products are expected to surge in Korea once Korea and the European Union (EU) finalize the Organic Equivalency Agreement. They began negotiations in July after an EU request in February.

Once the pact is signed, Lehmann said that organic producers would be free to ship their certified organic products into Korea.

"Denmark is ready to open up our knowledge and expertise in organic production," he said.

Quality 품질 / preference 선호 / opportunity 기회 / envoy 대사 / potential 잠재력 / bilateral 쌍방의 / poultry 닭고기 / position 위치 / certified 보증된 / finalize 마무리짓다 / equivalency 동등성 / negotiation 협상 / pact 협상 / expertise 전문성

덴마크가 유기농 소비자들에게 눈을 돌리다

중산층과 상류층 한국 소비자들이 음식을 살 때 가격보다 질을 우선시 하였으며 그들의 안전한 음식을 향한 선호도는 유기농 상품의 성장을 이끌었다.

세계의 대표 유기농 상품 제조업 국가들 중 하나인 덴마크는 한국에서의 유기농 소비의 성장을 기회의 창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 매우 흥미로운 시장이다,” 덴마크 대사인 토마스 레만이 말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들 중 하나이면서 빠르게 자라나는 중산층을 가지고 있는 이 국가는 자라나는 시장이다. 한국 시장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덴마크 대사는 유기농 식품을 가까운 미래에 쌍방의 무역을 증가시킬 수 있는 큰 잠재력을 가진 분야로 집어내었다.

“한국인 소비자들은 건강한 생활 방식을 더욱 찾아 헤매고 있으며 유기농 식품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그가 말했다. “덴마크는 세계에서 가장 큰 유기농 식품 제조업 국가들 중 하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서 일하고 있는 분야이다.”

한국은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소매업체에서 흔히 보일 만큼 다양한 덴마크의 상품을 수입한다.

“우리는 한국 시장에서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레만이 말했다.

보증된 덴마크 유기농 식품은 한국과 유럽 연합이 유기농 동등 조약을 체결하면 한국에서 더욱 인기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들은 2월에 유럽 연합이 협상을 요청한 후 7월에 협상을 시작하였다. 이 협정이 체결되면 레만은 유기농 식품 제조업체들이 그들의 보증된 유기농 식품을 한국으로 자유롭게 배송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덴마크는 유기농 제조에 대한 우리의 지식과 전문성을 개방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그가 말했다.

Entertainment

Epik High tops charts

Epik High is a three-member hip-hop group. During interview, Tablo, DJ Tukutz and Mithra shared jokes with each other and acted as if they were family members rather than friends.

They have been together as group for 11 years, a rare feat in a time when most "idol" groups often don't last half that time.

In that period, the trio has produced eight albums, the last being "Shoebox" with 12 tracks, the result of a two-year endeavor, which was released Oct. 21.

"Shoebox" has 10 songs on the top 50 Naver music list with "Happen Ending" and "Spoiler" in the top 10.

"We enjoy hearing our own songs in streets, cafes, bars, anywhere where people gather," Tablo said.

share 나누다 / produce 만들다 / period 기간, 시기 / endeavor 노력, 시도 / release 발매하다 / gather 모이다

에픽하이 음원차트 1위

에픽하이는 세 명의 멤버로 이루어진 힙합그룹이다. 인터뷰 중 타블로, DJ투컷, 미쓰라는 서로 농담을 주고 받으며 친구보다는 가족같이 행동했다.

그들은 11년간 그룹 활동을 했고 이는 절반의 “아이돌” 그룹들이 이 기간의 절반조차도 생존하지 못하는 드문 긴 기간이다.

그 기간에 이 트리오의 여덟 개의 앨범을 냈고 10월 21 발매된 12곡으로 이루어진 가장 최근 앨범 “신발장”은 2년간의 노력의 결실이다.

“우리는 우리의 음악을 거리, 카페, 바, 우리가 모이는 어느곳에서나 듣는 것을 즐긴다,”라고 타블로가 말했다.

No Hong-chul quits major programs after being booked for drunken driving

Comedian and TV show host No Hong-chul apologized for driving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and offered to leave two popular TV reality shows he is now appearing in to take time to reflect on himself.

The move came after he was booked without detention for drunken driving in southern Seoul. Police said they took a blood sample and sent it to the National Forensic Service for assessment as he refused to take a sobriety test.

The test result has yet to be released.

"I sincerely apologize for causing troubles to you for driving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I'm really sorry for disappointing many of you who supported me by making a bad decision," the 35-year-old comedian said through MBC.

"So, I'm expressing my intent to leave the TV programs that I'm currently appearing in," he said.

drunken driving 음주운전 / apologize 사과하다, 사죄하다 / reflect on oneself 반성하다 / blood sample 혈액채취 / sobriety test 음주 측정 / sincerely 진심으로 / decision 판단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주요 방송에서 하차하는 노홍철

코미디언이자 티비쇼 호스트인 노홍철이 음주운전을 한 것을 사과했으며 반성의 의미로 그가 출연중인 두 개의 유명 티비 리얼리티 쇼에서 하차의사를 밝혔다.

그의 이러한 행동은 그가 서울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다.

경찰은 노씨가 음주 측정을 거부해, 채혈을 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감정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노홍철은 MBC를 통해 “저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시청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저를 아껴주셨던 많은 분들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 드려 죄송한 마음뿐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제가 출연 중인 프로그램 제작진에게 하차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라고 말했다.

Jang Na-ra headlines new MBC drama

Singer and actress Jang Na-ra, 33, who was lauded for her performance in "Fated to Love You" last summer, came back in another offbeat romance comedy drama "Mr. Back".

In MBC TV's 16-part drama for the Wednesday-Thursday night slots, Jang stars as Eun Ha-soo, an intern who falls in love with a business tycoon Choi Go-bong (played by actor Shin Ha-kyun) in his 70s, who magically transforms into a young man in his 30s all at once.

In a meeting with reporters, Jang said her character is a little bit different from the conventional candy girl she had played.

"Eun Ha-soo is different from previous roles that I had played. She looks noisy and senseless, but actually is a warm-hearted person who is reliable. She becomes a faithful supporter of the company chairman Choi," Jang said at the MBC building in Sangam-dong, west Seoul.

offbeat 색다른 / come back 돌아오다 / business tycoon 실업계의 거물 / conventional 전통적인 / previous 이전의 / noisy 시끄러운 / senseless 분별 없는 / actually 사실은 / faithful 믿음직한

새로운 MBC 드라마의 주인공 장나라

가수겸 배우 장나라(33)가 지난 여름 “운명처럼 널 사랑해”에서 뛰어난 연기로 극찬을 받은 후 또 다른 색다른 로맨스 코미디 드라마 “미스터 백”으로 돌아왔다.

장나라는 엠비씨 텔레비전의 16부작 수목 드라마에서 실업계의 거물이자 70대에서 마법처럼 30대의 젊은이로 바뀐 최고봉(신하균이 배역을 맡음)과 사랑에 빠지는 인턴을 연기한다.

기자들과의 미팅에서 장나라는 이 캐릭터가 그녀가 이제까지 해왔던 전통적인 캔디걸과는 약간 다르다고 말했다.

“은하수는 내가 연기했던 다른 역할과는 다르다. 그녀는 시끄럽고 분별없지만 사실은 따듯한 마음씨를 가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녀는 회사최회장의 믿음직한 지지자가 된다.”서울 상암동에 있는 엠비씨 빌딩에서 장나라가 말했다.

Sports / Health

Bringing boxing back to golden age

International Boxing Association (AIBA) President Wu Ching-Kuo has led some major changes in his sport, including Olympic eligibility for pro boxers.

Wu said such new moves were aimed at taking boxing back to its golden age.

"What we are doing is extending boxers' career by giving them chances to stay competitive longer," Wu said of the AIBA Pro Boxing (APB), a new competition launched Oct. 24. Unlike other professional boxing events, APB allows participants to retain Olympic eligibility.

The APB not only gives Olympic tickets to fighters, but offers a chance to many amateur boxers — whom Wu described as "AIBA boxers" — to stay competitive and active after their Olympic glories.

"After they finish AIBA boxing career, what would be their next step? They either would be taken back to other professional organization. And sadly, many of them have no development. Eventually, they are finished," he said.

There are not many boxers who successfully followed up Olympic medals into professional titles.

He said that this goes against the spirit of Olympics, where top athletes gather to compete.

He also gave advice to the Korea, where popularity for the sport has considerably decreased. "Korean boxing is coming back now under the new leadership of President Chang (Boxing Association of Korea President Chang Yoon-seok)," he said, adding that he hopes Korea will bring quality boxers to AIBA down the road.

Eligibility 참가자격 / aim 목표로 하다 / extend 늘리다 / competitive 경쟁력 있는 / participant 참가자 / glory 영광 / organization 기관 / development 발전 / successfully 성공적으로

복싱을 황금기로 되돌리다

국제복싱협회(AIBA)의 우 칭쿠오 대표가 복싱에서 프로 복서들을 위한 올림픽 참가자격을 포함한 큰 변화를 이끌고 있다.

우 대표는 이러한 새로운 움직임은 복싱을 황금기로 되돌리려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복서에게 기회를 더 주어 더 오래 경쟁할 수 있도록 복서의 경력을 늘리는 것이다,” 우 대표가 10월 24일날 시작된 새로운 대회인 AIBA 프로 복싱(APB)에 대해 말했다. 다른 전문적인 복싱 행사와는 달리 APB는 참가자들이 올림픽 참가자격을 계속 가지고 있기를 허락한다.

APB는 올림픽 티켓을 선수들에게 줄 뿐만 아니라 우 대표가 “AIBA 복서”들이라고 명명한 아마추어 복서들에게도 기회를 주어 그들의 올림픽 영광 이후에도 현역으로 싸울 수 있도록 한다.

“AIBA 복싱 경력을 끝낸 후에는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다른 전문적인 기관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슬프게도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발전을 하지 못한다. 결국 그들은 끝났다,”고 그가 말했다.

올림픽 메달을 딴 후 성공적으로 프로로 전향한 복서들은 많지 않다.

그는 이는 최고의 선수들이 모여서 경쟁하는 올림픽의 정신과 반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복싱의 인기가 현저히 줄고 있는 한국에 조언을 하였다. “한국 복싱은 장 대표 (한국복싱협회의 장윤석 대표)의 새로운 리더십 아래에 이제 돌아오고 있다,”고 한국이 장래에 훌륭한 복서들을 AIBA에 데려오기를 희망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이며 그가 말했다.

Four in five adolescents have myopia

Four in five adolescents aged 12 to 18 are near-sighted, according to a study conducted by the Korean Ophthalmological Society (KOS).

The KOS noted that the increased use of smartphones is a major cause of the problem.

The society found that 80.4 percent of teenagers have myopia, the highest incidence among all age groups of the population. Among these, 11.7 percent of them have excessive myopia, which could result in them eventually losing the sight entirely.

According to the KOS, the prevalence of myopia amo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has increased dramatically over the past few years.

The organization said myopia in the 1970s within the same age group was merely eight to 15 percent; then, it shot up to 23 percent in 80s and to 38 percent in the 1990s.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the average Korean teenager spends 2.6 hours on their smartphone each day. The KOS believes that spending more than one hour using a smartphone could cause problems in a person's vision.

"It is critical to try and prevent myopia before teenagers reach their 20s because it only occurs only when they are young," said Chin Hee-seung, director of planning and management at the KOS.

"Many other countries have made great efforts to prevent children from developing myopia. Japan even has a 'vision protection' program on its physical education curriculum," said KOS President Kim Man-soo.

He said the government needs to be more proactive about raising awareness of this increasingly serious issue.

Adolescent 청소년 / near-sighted 근시의 / ophthalmological 안과의 / myopia 근시 / excessive 극심한 / entirely 전체적으로, 완벽히 / prevalence 만연 / merely 단지, 고작 / critical 중대한 / protection 보호 / curriculum 교과과정 / proactive 사전대책을 강구하다 / awareness 인식

청소년 다섯 명 중 네 명이 근시를 가지고 있다

대한안과학회가 진행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다섯 명 중 네 명의 청소년들이 근시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대한안과학회는 스마트폰의 늘어난 사용이 이 문제에 대한 주요 이유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학회는 인구의 모든 나이 그룹에서 가장 큰 수치인 80.4 퍼센트의 청소년들이 근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이들 중 11.7%는 완벽한 실명에도 이르러 수 있는 극심한 근시를 가지고 있었다.

대한안과학회에 따르면 초등학교들 사이에 근시의 만연은 지난 몇 년 동안 급격히 상승하였다고 한다.

이 협회는 1970년 대의 같은 나이의 근시는 단지 15 퍼센트였지만 80년 대에 23 퍼센트로 올랐고 1990년대에 38 퍼센트로 올랐다고 한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들은 평균 2.6시간을 매일 스마트폰을 하는데 보낸다. 대한안과학회는 1시간 이상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은 사람의 시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믿는다.

“어렸을 때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20대에 접어들기 전에 근시를 막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대한안과학회의 설계와 관리를 담당하는 진희승 팀장이 말했다.

“많은 다른 국가들이 아이들이 근시를 가지는 것을 막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일본은 체육 교과과정에 ‘시력 보호’ 프로그램이라는 것도 가지고 있다.”고 대한안과학회 김만수 대표가 말했다.

그는 정부가 이 자라나는 심각한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사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Culture / Science

SK Planet forum discusses future of mobile commerce

SK Group commerce affiliate SK Planet, says new mobile commerce technologies will further blur the line between online and offline transactions and change the way customers buy products.

During the company's IT fair "Tech Planet 2014" at COEX in Samseong-dong, southern Seoul, SK Planet discussed with e-commerce global players — including Alibaba, Google and Facebook — the future of e-commerce, Internet of Things (IoT), wearable devices and other key IT issues.

"Various creative IT hardware devices are increasingly connected to software, bringing more connections between humans and computers, as well as computers and the world," said SK Planet chief technology officer Jeon Yun-ho in an opening speech.

"This change will bring more innovative services and opportunities in the mobile commerce industry. Alongside such new technologies, devices and ideas, new regulations and standards should be made."

commerce 상업 / affiliate 제휴[연계]하다 / blur the line 경계를 허물다 / discuss 토론하다 / various 다양한 / device 장치 / regulation 규제 / standard 기준

SK 플래닛 포럼에서 모바일 상품의 미래를 토론하다.

SK 그룹의 계열사 SK 플래닛은 새로운 모바일 기술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거래의 경계를 허물 것이고,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하는 방법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한다.

서울 남부의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Tech Planet 2014"라는 회사의 IT 박람회 동안에, SK 플래닛은 알리바바, 구글, 페이스북을 포함한 세계의 전자상거래 업체와 전자상거래의 미래, 사물인터넷, 웨어러블 장치와 다른 중요한 IT 이슈에 대해 토론했다.

"다양한 창조적인 IT 하드웨어 장치들이 점점 소프트웨어와 연결되었고, 사람과 컴퓨터 뿐만 아니라 컴퓨터와 세계를 더욱 연결할 것이다." 라고 SK 플래닛의 CTO 전운호가 개최연설에서 말했다.

"이 변화는 모바일 제품 산업에 더 혁신적인 서비스와 기회를 가져올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기술, 장치, 아이디어와 나란히, 새로운 규제와 기준이 만들어져야 한다."

Samsung acquires US software company

Samsung Electronics said that it has acquired Proximal Data, a U.S.-based flash software caching company, to boost its move to grow faster storage devices for corporate servers and data centers.

Proximal Data, a San Diego, Calif.-based developer, is specialized in providing server-side caching software with I/O intelligence that works within virtualized systems.

Samsung declined to unveil financial terms of the deal.

It said the acquisition will significantly help the firm boost its presence in the fast-growing solid state drive (SSD) market.

"Samsung seeks to focus on components to be used in business-to-business solutions such as servers and we are producing more SSD solutions to enterprise customers by enhancing our competence in SSD-based software for server systems," said an official.

Acquire 습득하다 / caching 캐싱 / boost 북돋우다 / storage 저장장치 / corporate 통합하다 / unveil 드러내다 / significantly 중요하게 / component 요소

삼성이 미국 소프트웨어 회사를 얻다

삼성전자는 서버와 데이터 센터의 통합을 위해 빠른 저장장치 시장을 키우기 위하여 미국기반의 플래쉬 소프트웨어 캐싱 회사인 Proximal Data를 인수했다.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출신 개발회사 Proximal Data는 가상시스템 안에서 작동하는 I/O 지능과 함께인 서버 사이드 캐싱 소프트웨어에 특화되어 있다.

삼성은 계약의 재정적인 부분을 드러내는 것을 거절하였다.

인수는 현재 SSD 시장의 빠른 성장에 회사의 성장을 중요하게 도울 것이라고 삼성은 말했다.

“삼성은 서버와 같은 B2B솔루션에 사용되는 요소에 집중하는 것을 찾고 있고, 서버 시스템들을 위한 SSD 기반의 소프트웨어에 경쟁력을 강화 함으로서 기업 고객에게 더 나은 SSD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고 말했다.

Features

'K-cartoon can generate global audience'

"Manhwa" is a popular medium that has been growing amid many changes during the past century here.

Though there was a time when parents and school teachers discouraged students from reading manhwa due to concerns that it might interfere with school, cartoonists had enjoyed an explosive popularity in 80s and 90s.

Changing its platform from conventional paper book to digital comic book thanks to the high-speed networks and mobile Internet devices, online manhwa, called "webtoon" has proliferated since the beginning of this century.

Now, it is common to see people watching their diminutive smartphone screen to read manhwa in a bus or a subway.

global 세계적인 / audience 독자 / amid 가운데 / discourage 막다, 말리다 / explosive 폭발적인 / proliferate 확산되다 / diminutive 아주 작은

'한국만화 세계적인 독자를 양성할 수 있다'

“만화”는 이곳에서 지난 몇 세기 동안 한 변화 가운데 성장한 인기 있는 매체다.

부모들과 학교 선생님들이 학교에 개입할까봐 만화를 읽지말라고 했던 때가 있었지만 만화가들은 80년대와 90년대에 폭발적으로 늘었다.

빠른 속도의 네트워크와 모바일 인터넷 디바이스 덕에 플랫폼을 전통적인 종이 책에서 디지털 코믹북으로 바꾼 온라인 만화 “웹툰”은 이 세기가 시작할때부터 확산되었다.

이제 버스나 지하철에서 각자의 아주 작은 스마트폰 스크린으로 만화를 보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Korea, Oman to hold joint fashion show

An unlikely collaboration between two countries will offer a new set of lens into the traditional fashion of a place we may not be so familiar with.

H.E. Mohamed Alharthy, the Ambassador of the Sultanate of Oman (known simply as Oman) has joined hands with Jung Jae-min, the President of the Korean Culture Association, for an Omani-Korean Traditional Clothing Fashion Show in celebration of the 40th anniversary of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the two nations.

Oman, an Arab country in the Middle East, still exercises absolute monarchy and has a deep attachment to Islamism.

Omanis manifest their rich cultural and political history through traditional clothing. Women wear colorful dresses decorated with jewels while men are dressed in white.

Collaboration 콜라보레이션(협력) / offer 제공하다 / traditional 전통적인 / be familiar with ~에 친숙하다

/ Ambassador 대사 / Omani 오만의, 오만사람 / diplomatic 외교의 / monarchy 군주제 / Islamism 이슬람주의

한국, 오만과 함께 패션쇼

두 나라간의 뜻밖의 콜라보레이션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을지도 모를 장소의 전통적인 패션안에 새로운 시각으로 제공될 것이다.

오만의 술탄(간단히 오만이라고 불리는) H.E. 모하마드 안하티대사는 두 나라간의 수교 40주년을 기념하는 오만 한국 전통복 패션쇼를 위해 대한민국 문화부장관 정재민씨와 손잡았다.

중동의 아랍국가 오만은 여전히 완전군주제를 시행하고, 이슬람주의와 깊은 연관이 있다. 오만 사람들은 전통복장을 통해 그들의 부유한 문화와 정치적 역사를 나타낸다. 여성은 보석으로 장식된 형형색색의 드레스를 입는 반면, 남자는 하얀 복장을 입는다.

Business

Foreign investors skip Korea, flock to Taiwan, India

Foreign investors have reduced their exposure to Korean stock markets on weak corporate earnings outlooks and unfavorable exchange rates, analysts said.

Instead, they are moving to Taiwan and India.

Foreigners were net buyers of Seoul stocks worth \$219 million in the last week of October, compared with \$1.4 billion in Taiwan and \$660 million in India, according to the Korea Exchange.

They turned cautious because of poor performances by Hyundai Motor and Samsung Electronics.

India and Taiwan are appealing to investors for different reasons.

Apple's Taiwanese subcontractors are attracting investors for Apple's strong performance and outlook.

China and Hong Kong are gaining momentum as the stock markets in Shanghai and Hong Kong will be hooked up.

The cross-border program will allow investors in Hong Kong and China to trade some listed stocks in each other's market through their respective brokerage houses.

"Seoul stocks are less attractive than those in Taiwan, India and China," said Kim Hu-jung, an analyst of Yuanta Securities.

"Even though foreign funds targeting emerging markets are expanding their exposure to emerging markets, Korea is expected to benefit less," she said.

Investor 투자자 / exposure 노출 / corporate earning 기업 이익 / outlook 전망 / foreigner 외국인 / cautious 조심스러운 / performance 성과 / subcontractor 하청업체 / momentum 추진력 / respective 각각의 / brokerage 중개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을 건너뛰고 대만, 인도로 몰려가다

외국 투자자들이 기업 이익에 대한 약한 전망, 호의적이지 못한 환율 때문에 한국 증권거래소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줄였다고 분석가들이 말했다.

대신 그들은 대만과 인도로 옮겨가고 있다.

외국인들은 대만의 14억 달러와 인도의 66백만 달러에 비해 10월의 마지막 주에 서울의 주식 2억 19백만 달러의 순 구매자들과 한국거래소가 전했다.

그들은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의 부진때문에 조심스럽게 변했다.

인도와 대만은 투자자들에게 다른 이유들로 인기를 끌고 있다.

애플의 대만 외주업체들은 애플의 강한 실적과 전망으로 투자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중국과 홍콩은 상해와 홍콩에 있는 주식 시장들이 곧 연결될 것이기 때문에 번성하고 있다.

국경을 넘는 프로그램은 홍콩과 중국에 있는 투자자들이 그들 각각의 중개업자를 통해 서로의 시장에 나열되어 있는 주식들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 주식들은 대만, 인도, 중국 등에 비해 덜 유혹적이다,”라고 유안타 증권사의 김희정 분석가가 말했다.

“비록 새로 나타나는 시장에 맞추어져 있는 외국 자금이 새로 나타나는 시장에서의 노출을 확장하고 있지만 한국은 이득을 적게 주는 것으로 예상된다,”고 그녀가 말했다.

IKEA pricing under fire

IKEA is opening its first shop in Korea next month amid much expectation among consumers and concerns from domestic furniture manufacturers. The global home furnishing brand opened a Korean Website presenting photos and prices of around 8,000 products to be sold here, from furniture and lifestyle appliances to children's toys.

Customers here seem to be much anticipating the opening of the IKEA store.

"We've needed this. The local furniture industry was very fishy in setting the right price," an Internet user commented. Founded in 1943, IKEA grew into a global company by offering do-it-yourself home furnishing products at reasonable prices. Its sales continued to rise in the past three years to 29 billion euros in 2013 from 26 billion euros in 2011, and it is ranked at 31st in the world in terms of brand value. It currently employs around 150,000 people in over 345 shops in 42 countries.

The advancement of IKEA has been regarded as a major threat to domestic furniture firms since a few years ago when the former's plan was first revealed.

"IKEA has a gigantic shop in the suburbs where the land price is relatively cheap...It has a huge showroom and warehouse, and helps the customers directly take the product and install it do-it-yourself, providing a delivery service for additional fees if the customer requests it," said Park Joong-sun, an analyst at Kiwoom Securities.

"The main target customers of IKEA will be young people who want to purchase reasonably-priced goods in a free atmosphere," he said.

Some expect IKEA to damage not only furniture manufacturers but also the interior industry and retail outlets where items overlap. IKEA has been expanding its business to include children's goods and even furniture for restaurants.

Expectation 기대 / domestic 국내의 / appliance 기기 / anticipate 기대하다 / fishy 수상한 / reasonable 알맞은 / advancement 발전 / reveal 밝히다, 공개하다 / gigantic 거대한 / suburb 교외 / warehouse 창고 / atmosphere 환경 / overlap 겹치다

이케아 가격 포화를 받다

이케아가 소비자들의 많은 기대와 국내 가구제조업체들의 우려 속에 한국에 첫 매장을 다음달에 연다. 세계적인 가정용 가구 상표는 가구와 생활 가전제품에서부터 아이들 장난감 까지 국내에서 팔릴 약 8,000 개의 상품의 사진들과 가격들을 보여주는 한국 웹사이트를 열었다.

국내 소비자들은 이케아 매장의 개장을 많이 기대하고 있는 것 처럼 보인다.

“우리는 이것이 필요했다. 국내 가구 산업은 올바른 가격을 책정하는데 있어서 수상하다,” 한 인터넷 사용자가 말했다.

1943 년에 열린 이케아는 알맞은 가격에 직접 조립하는 가정용 가구 상품을 제공하는 세계적 회사로 자라났다. 이케아의 판매는 2011 년의 260 억 유로에서부터 2013 년에 290 억 유로로 지난 3 년 동안 꾸준히 성장했으며 상품 가치로 세계에서 31 위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42 개국의 345 군데의 매장에서 150,000 명을 고용하고 있다. 이케아의 발전은 몇 년 전 이케아의 계획이 처음 밝혀졌을 때부터 국내 가구회사들에게 큰 협박으로 여겨져왔다.

“이케아는 땅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교외의 거대한 매장을 가지고 있다... 커다란 전시실과 창고를 가지고 있으며 소비자가 원한다 추가비용에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들이 직접 상품을 가져가고 직접 설치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키움증권의 박중선 분석가가 말했다.

“이케아의 주요 목표 소비자들은 가격적으로 알맞은 상품을 자유로운 공간에서 구매하고 싶어하는 젊은 층이다,”라고 그가 말했다.

몇몇은 이케아가 가구 제조업체 뿐만 아니라 상품이 겹치는 이케아인테리어 산업과 소매 아울렛에도 손해를 끼칠 것으로 예상한다. 이케아는 아이들 상품과 식당을 위한 가구들조차 포함하는 사업을 확장시켜왔다.

Society

Seven Dwarfs ride on fire

Passengers had to be evacuated when a fire broke out on a children's ride at Florida's Disney World. Firefighters took more than 40 minutes to put out the blaze.

The 20-seat Seven Dwarfs Mine Train ride caught fire at 10:20 p.m. local time in Orlando. It resumed operations at midnight.

An ember from a fireworks display is believed to have caused the blaze. No one was injured.

Witnesses posted photos of the fire and firemen on cranes trying to extinguishing the flames.

The ride, which opened in May, is a child-friendly version of blockbuster rides like Thunder Mountain and Terror Tower.

evacuate 대피하다 / break out 발발[발생]하다 / local 현지의 / injure 부상을 입다 / witness 목격자 / extinguish 끄다, 없애다 / child-friendly 아동친화적인

‘일곱 난장이 롤러코스터’가 불타다

디즈니 월드에서 '일곱명의 난장이' 롤러코스터 에 불이 나서 약 스무명의 탑승객들이 대피했다. 40분 넘게 진화작업을 진행했다.

현지시간 저녁 10시 20분 쯤 올란도 플로리다에 있는 롤러코스터는 운행 중단되었다. 이는 새벽 12시 쯤 재개되었다.

주위 불꽃놀이에서 터진 불꽃이 열차에 붙어 화재가 발생 된 것이며, 다친 사람은 없다.

목격자들은 불과 크레인에서 화재를 진압하려는 소방관들의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했다.

5월에 열린 이 롤러코스터는 썬더 마운틴이나 테러 타워같은 블록버스터 롤러코스터들의 아동친화버전이다.

Starbucks now deliver

Starbucks is no longer about sitting behind cash registers and waiting for beverages to be sold: it will soon start delivering possibly to customers' doorsteps, Canada's local newspaper the Toronto Star said.

Scheduled for launch in the beginning of 2015 across selected areas in the U.S., the delivery service will be an option that customers can choose from the brand's smartphone app.

The move is part of the Seattle-based coffee giant's ongoing efforts to embrace online consumers. Starbucks previously announced its new online pre-order system that allows customers to purchase beverages in advance using the app and later simply pick them up at stores.

Starbucks CEO Howard Schultz was quoted as saying, "We are playing offense," by the newspaper in regards to the new delivery service.

beverage 음료 / cash register 금전 등록기 / doorstep 문간, 문앞 / delivery 배달 / ongoing 계속 진행 중인 /

simply 단순히 / announce 발표하다 / offense 공격진

배달하는 스타벅스

스타벅스는 더이상 금전 등록기 뒤에 앉아서 음료가 팔리길 기다리지 않는다 : 이제 가능한 소비자의 문간까지 배달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캐나다의 지역 신문인 토론토 스타가 말했다.

미국 전역에서 선택된 몇몇 지역에서 2015년 초에 시작하기로 예정되어있는 배달 서비스는 스타벅스의 스마트폰 앱에서 고를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온라인 소비자들을 잡기 포섭하기 위한 시애틀에 본점이 있는 스타벅스의 계속되는 노력이다.

배달 옵션 제공을 발표하기에 앞서 스타벅스는 소비자들이 자사 매장에 오기 전 스마트폰을 통해 미리 주문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이미 밝혔었다.

스타벅스의 CEO 하워드 쉘츠는, "우리는 공격적으로 나가기로 했다,"며 이 새로운 배달 서비스에 관련해 신문에 기고했다.

Story

Experts: Population to Grow from 7 to 11 Billion

Our planet is home to about seven billion people. Since the 1990s, population experts have predicted the number would grow to nine billion before it begins to slow down and possibly decrease.

But a new report predicts the world's population is likely to increase to almost 11-billion by 2100. The new estimates are based on the most modern statistical tools. They make use of government records and expert predictions about death rates, fertility rates and international migration, or people moving across borders.

During the rest of this century, Africa is likely to experience the largest increase in population. The report says Africa's population will grow from about 3.5 billion to 5.1 billion people over the next 85 years.

John Wilmoth is director of the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He says that in the past, researchers thought population growth in Africa would be similar to that of other areas. They expected slower growth rates as birth control use became more widespread. But he says those estimates were wrong.

The latest population estimates appear in a report published in Science magazine. The findings replace the most recent U.N. projections, which were released in July.

Expert 전문가 / population 인구 / billion 10 억 / predicted 예상되는 / estimates 예정 / statistical 통계적인 / fertility 비옥함, 생식력 / migration 이주 / similar 비슷한 / widespread 광범위한 / release 풀어주다

70 억에서 110 억으로 증가하는 인구

지구에는 약 70 억 명이 거주하고 있다. 1990 년대부터 인구 전문가들은 숫자의 증가가 더뎠고 감소가 시작하기 전까지 인구는 약 90 억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해왔다.

그러나 새로운 한 연구에서 세계 인구는 2100 년까지 약 110 억 명으로 증가할 수도 있을 것이라 예측한다. 이 새로운 숫자는 가장 현대적인 통계 도구를 근거로 산출된 것이다. 이 도구들은 사망률, 출산율, 그리고 국제 이주, 즉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부 기록과 전문 예측을 사용한다.

이번 세기의 남은 시간 동안 아프리카(Africa)가 가장 큰 인구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프리카의 인구가 다음 85년 동안 35억 명에서 51억 명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존 윌모스(John Wilmoth) 씨는 유엔 인구국(the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의 감독이다. 그는 과거에는 연구자들이 아프리카의 인구 증가율이 다른 곳과 비슷할 것으로 생각했었다고 이야기한다. 그들은 산아 제한이 보편화되면서 인구 증가율이 더더질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 같은 예측은 틀렸다고 그는 말한다.

가장 최신 인구 추계는 사이언스(Science) 지의 한 보고서에 게재되었다. 이 연구 결과는 7월에 발표되었던 유엔의 인구 추계를 대체하게 되었다.

Is North Korea Preparing to Strike US Electric Grid?

A longtime national security advisor to the United States Congress has said the country's electric system -- called a "grid" -- is mostly unprotected.

Peter Vincent Pry believes North Korea is ready to attack the U.S. electric grid using electromagnetic pulse, or EMP. He said North Korea tested the plan last year when it put a satellite into orbit. The satellite was in a position where it could carry out such an attack against the United States.

An electromagnetic pulse is a short "burst" of electromagnetic energy. It can be natural or created by humans. EMP bursts from lightning can damage electronic equipment. At very high levels, an EMP can damage trees, buildings and aircraft.

Mr. Pry said North Korea tested EMP in February of 2013 over the South Pole. The test was done after the country's third illegal nuclear test.

Later in 2013, a North Korean cargo ship was stopped as it carried missiles through the Panama Canal. The missiles were hidden under thousands of bags of sugar.

Mr. Pry said this was not a mistake by North Korea. He believes North Korea was testing to see if it could send nuclear weapons through the Gulf of Mexico and the Panama Canal without being caught.

Mr. Pry said a group of Russian generals and two of Russia's top EMP experts met with the EMP commission in 2004. The Russians talked about the development of a technology for a high-energy EMP attack near the end of the Cold War. It was a kind of nuclear weapon that would produce a very powerful electromagnetic pulse.

The Russian generals told the commission, "We have bad news. We developed this super EMP weapon, and during the post-Cold War brain drain, some of our scientists went to North Korea."

At the time, Mr. Pry said, the Russian generals told them that North Korea could develop a super EMP weapon within a few years.

Prepare 준비하다 / strike 치다, 부딪히다 / grid 차세대 인터넷 운영체제 / congress 단체, 회의 / unprotected 보호받지 못하는 / electromagnetic 전자기의 / pulse 맥박 / satellite 위성 / orbit 궤도 / aircraft 항공기 / nuclear 원자력의 / commission 위원회 / weapon 무기

북한은 미국의 전략망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는가?

오랫동안 미국 의회의 국가 안보 보좌관 역할을 해 온 이에 따르면 국가의 전략 시스템인 "그리드"는 대부분 무방비 상태라고 한다.

피터 빈센트 프라이(Peter Vincent Pry) 씨는 북한(North Korea)이 전자기 펄스, 즉 EMP 를 이용하여 미국의 전력망을 공격할 준비가 되었다고 믿는다. 그는 북한이 지난해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렸을 때 이 계획을 실험했다고 이야기했다. 인공위성은 미국을 상대로 이러한 공격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한다.

전자기 펄스는 솟구치는 전자기 에너지를 말한다. 이는 자연적이거나 인간에 의해 만들어질 수도 있다. 번개로부터 오는 전자기 펄스는 전자 장비를 손상시킬 수 있다. 아주 높은 수준의 전자기 펄스는 나무, 건물 그리고 항공기를 파손할 수도 있다.

프라이 씨는 북한이 2013 년 2 월 남극 상공에서 전자기 펄스를 실험했다고 말한다. 이 실험은 북한이 세 번째 불법 핵 실험을 진행한 이후에 이루어졌다.

2013 년 말, 미사일을 싣고 파나마 운하(Panama Canal)를 통과하던 북한의 선박은 저지되었다. 수천 봉지의 설탕 아래 미사일들이 숨겨져 있었다.

프라이 씨는 이것은 북한의 실수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멕시코 만(Gulf of Mexico)과 파나마 운하(Panama Canal)를 통해서 보낼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려는 것이었다고 믿는다.

프라이 씨는 러시아(Russia) 장군 한 집단과 러시아 전자기 펄스 전문가 두 명이 함께 2004 년 전자기 펄스 위원회와 만남을 가졌었다고 말했다. 러시아인들은 냉전이 끝나갈 무렵 고에너지 전자 펄스 공격을 위한 기술 개발에 관해 이야기했다. 이는 매우 강력한 전자기 펄스를 만들어낼 핵 무기를 말한다.

러시아 장군들은 위원회에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저희는 강력한 전자기 펄스 무기를 개발했는데, 냉전 후 두뇌유출이 발생했을 당시 몇몇 과학자들이 북한으로 건너갔습니다.”

프라이 씨에 따르면, 당시 러시아 장군들은 북한이 몇 년 이내로 강력한 전자기 펄스 무기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